

베드로후서 1:20의 한글 번역에 대한 제언

한철흠*

1. 서론

베드로후서 1:20은 흔히 성경 해석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말하는 구절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개역개정』은 이 구절이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풀면 안 됨을 말하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개역개정』).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하반절의 번역인데, 다른 우리말 성경은 『개역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역한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새번역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번역』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성서의 어떤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동개정』	성서의 어떤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새한글』	성경의 예언은 다 자기 맘대로 그 뜻을 풀이해서는 안 된다.

* Vanderbilt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scratch@kbtus.ac.kr.

『현대인의 성경』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우리말 성경은 놀랍게도 한결같이 독자가 성경의 예언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번역하였다. 20하반절을 “no prophecy of Scripture derives from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예언자 자신의 해석에서 유래하지 않는다)”이라고 번역한 리처드 보컴(Richard J. Bauckham)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석가와 번역은 “no prophecy of Scripture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 (어떤 성경의 예언도 사람 자신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지만,¹⁾ 오늘날의 상황은 다소 다른 듯하다. 다양한 영어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번역은 크게 둘로 나뉜다.

NET	No prophecy of scripture ever comes about by the prophet’s own imagination.
NIV	No prophecy of Scripture came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of things. ²⁾
CSB	No prophecy of Scripture comes from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NLT	No prophecy in Scripture ever came from the prophet’s own understanding.
EASY ³⁾	The prophets’ messages in the Bible did not come from their own ideas. That never happens.
KJV	No prophecy of the scripture is of any private interpretation.
RSV	No prophecy of scripture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
NRSUE (2021)	No prophecy of scripture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
NAS	No prophecy of Scripture becomes a matter of someone’s own interpretation.
CEV	No one alone can understand any of the prophecies in the Scriptures.
EXB ⁴⁾	No prophecy in the Scriptures ever comes from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or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

1) R. J. Bauckham, *Jude, 2 Peter*, Word Biblical Commentary 50 (Waco: Word Books, 1983), 229.

2) NIV(2011)는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of things”라고 번역하였지만, 그 이전 판은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이라고만 번역하였다.

3) EasyEnglish Bible (Worcestershire: MissionAssist, 2018).

4) The Expanded Bible (Nashville: Thomas Nelson, 2011).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예언자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는 번역도 있고, 성경의 어떤 예언도 개인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번역도 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예언자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는 번역은 많은 주석가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베드로후서 1:20하반의 그리스어 원문의 의미가 중의적(重義的)이기 때문에 생긴다. 이 구절의 원문과 축자적 번역은 다음과 같다.

πάσα προφητεία γραφῆς ἰδίας ἐπιλύσεως οὐ γίνεται (벧후 1:20하)
 성경의 어떤 예언도 자기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ἰδίας의 번역이다. “자기의”를 의미하는 형용사 ἰδίας가 “누구 자신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단어가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는 독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번역도 있고, 예언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번역도 있다. 이 점은 복수의 번역을 함께 실은 EXB의 번역에 잘 나타난다. 본문에 실은 번역과 다른 번역이 가능함을 각주에서 설명하는 번역본도 있다. 예를 들면, NLT에서는 “Or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이라는 설명을 각주에 덧붙였다. NAS에서는 “becomes”에 “Or comes from someone’s”라는 설명을, “someone’s”에 “Or the prophet’s own”이라는 설명을 각주에 덧붙였다. NRS Updated Edition(NRSUE)에서는 one’s에 “Or the prophet’s”라는 각주 설명을 덧붙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흥미로운 차이점에 주목하여, 베드로후서 1:20하반의 그리스어 원문을 분석한 후에, 기존의 우리말 번역을 대체할 번역으로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예언자 자신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를 제안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형용사 ἰδίας가 독자가 아닌 예언자 자신을 가리킴을 보일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ἴδιος, γίνομαι, ἐπίλυσις, βέβαιος 등의 단어를 연구하고, 한편으로는 앞뒤 인접 문맥을 분석할 것이다.

2. 『개역개정』 번역의 타당성

본 논문에서는 베드로후서 1:20하반이 독자의 해석이 아니라 예언자의 해석에 관해 말한다고 주장하지만, 『개역개정』의 번역을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γίνεται가 소유격 명사구 ἰδίας ἐπιλύσεως와 함께

사용되듯이, 신약성경에서 γίνεσθαι가 소유격과 함께 사용되어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에 따르면, γίνεσθαι는 소유격과 함께 사용될 때, “누구의 재산이 되다(become the property of anyone)” — 혹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지배 아래 들어오다(come into the power of a person or thing)” — 를 의미한다.⁵⁾ 이 사전에서는 이 용법의 예로서 누가복음 20:14와 요한계시록 11:15 등을 든다.⁶⁾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 아들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ἵνα ἡμῶν γένηται ἡ κληρονομία), 그를 죽이자”(눅 20:14). 소유격 인칭대명사 ἡμῶν(우리의)과 함께 사용된 γένηται⁷⁾는 “우리의 것이 된다”를 의미하고, 이 절을 이끄는 ἵνα는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이다.⁸⁾

요한계시록에서도 γίνομαι는 소유격 명사와 함께 사용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다음과 같은 외침이 하늘에서 들린다. “세상의 나라는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계 11:15).⁹⁾ Ἐγένετο¹⁰⁾는 소유격 명사구인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우리의 주의) 및 τοῦ χριστοῦ αὐτοῦ(그의 그리스도의)와 함께 쓰여 “우리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를 의미한다.

이처럼 누가복음 20:14와 요한계시록 11:15에서 각각 소유격 인칭대명사와 명사구와 함께 쓰인 γίνομαι는 “...로부터 생기다”를 의미하지 않고, “...의 것이 되다”를 의미한다. *Thayer's Greek-English Lexicon*에서는 베드로후서 1:20을 그다음에 소개한다. προφητεία ἰδίας ἐπιλύσεως οὐ γίνεται가 의미하는 바는 “아무도 자신의 지능으로 예언을 설명할 수 없고 (그것은 주관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예언을 설명하려면 예언의 출발점인 성령의 동일한 조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¹¹⁾ 이것은 번역보다는 주해에 가깝다. 이 사전이 설명하는 대로 이 세 구절에 사용된 γίνεσθαι의 의미가 같다면, 베드로후서 1:20하반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자기의 해석이 되지 않는다.”

5) J. H. Thayer,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1996), 116.

6) Ibid.

7) γίνομαι의 부정 과거 중간태 디포넌트 가정법 3인칭 단수.

8) 평행 구절인 막 12:7에서 농부들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ἡμῶν ἔσται ἡ κληρονομία)”라고 말한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γίνομαι와 εἶμι는 소유격 명사와 함께 사용되어, 각각 “누구의 것이 되다”와 “누구의 것이다”를 의미한다.

9) 『개역개정』의 번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는 이미 “되었다(ἐγένετο)”라는 원문의 시제를 정확히 살리지 못한다.

10) γίνομαι의 부정 과거 중간태 디포넌트 직설법 3인칭 단수.

11) J. H. Thayer,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116.

성경의 예언이 자기의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의 예언이 자기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는 영어 번역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개역개정』 — 그리고 『개역한글』과 『새번역신약』 — 번역 과도 비슷하다. “사사로이[私私-]”의 사전적 의미는 “공적(公的)이지 않고 개인적인 성질이 있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¹²⁾ 따라서 『개역개정』의 번역은 분명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이 세 번역은 모두 성경의 예언이 개인의 해석에 달려 있지 않음을, 혹은 개인의 해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에 소개할 가톨릭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자가 어떤 의미에서 예언의 사사로운 해석을 금지하였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개역개정』의 번역을 따르면, 저자는 예언의 말씀을 개인이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할 뿐, 누가 해석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사사로운 해석을 금지한다면, 필시 공적(公的)인 해석을 추천한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만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3. γίνετα이의 의미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베드로후서 1:20하반이 예언의 해석에 관한 진술이면, γίνετα이는 “생기다”를 의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의미는 이 동사의 기본 의미에 해당한다. *Thayer's Greek-English Lexicon*에 따르면, γίνομαι의 일차적 의미는 “존재하게 되다(come into existence, begin to be, receive being)”이다.¹³⁾ BDAG에 실린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태어나다(be born, be produced),” 두 번째 의미는 “만들어지다(be made, be created),” 세 번째 의미는 “생기다(arise, come about)”이다.¹⁴⁾

이처럼 γίνομαι의 기본 의미를 살리고, 속격 명사구인 ἰδίᾳς ἐπιλύσεως를 출처의 속격(genitive of source; genitive of origin)¹⁵⁾으로 이해하면, 20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그리스어 원문은 전체 부정이지만, 첫 번째 번역

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h~o』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3108.

13) J. H. Thayer,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115.

14) F. W. Danker,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BDAG),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197.

15) D. B. Wallace, *The Basics of New Testament Syntax: An Intermediate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2000), 56.

은 부분 부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두 번째처럼 번역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낫다.

πάσα προφητεία γραφῆς ιδίας ἐπιλύσεως οὐ γίνεται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기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자기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20하반절을 해석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힘들다. 일부 번역본들이 주장하는 대로, 문맥이 허락하면 γίνεται를 “문제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BDAG 역시 ιδίας ἐπιλύσεως οὐ γίνεται를 “그것은 사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다(it is not a matter of private interpretation)”라고 번역하였다.¹⁶⁾

게다가 앞서 살펴본 대로, γίνεται를 “생기다” 대신에 “되다”로 번역하더라도, ιδίας ἐπιλύσεως를 소유의 의미로 해석하면, γίνεται를 “문제이다”로 번역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20하반절을 예언의 해석에 관한 진술로 보기 힘든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

4. ιδίας의 의미

베드로후서 1:20하반의 번역에서 γίνεται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는 ιδίας이다. 형용사 ιδίας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20하반절의 해석은 판이해진다. ιδίας는 “독자 자신의”, “특정한 예언 자체의”, “예언자 자신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옛 개신교 학계에서는 예언되는 개개의 구절을 가리킨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던 한편(따라서 종교개혁의 교리인 analogia fidei[믿음의 유비], 즉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교리),¹⁷⁾ 가톨릭 학계에서는 독자를 가리킨다고 보는(어떤 개인 독자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교회가 전해주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경향이 있었다.¹⁸⁾

옛 개신교계의 해석과 가톨릭계의 해석은 약간 비슷하다. 두 해석 모두 20하반절이 예언자가 하는 해석이 아니라, 예언을 해석함에 관해 말한다고 보기

16) BDAG, 199.

17) 일반적인 해석학 원리로서 믿음의 유비는 불분명한 본문이나 구절이 의미가 명백한 다른 성경 본문들의 조명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W. A. E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58.

18) NET 각주.

때문이다. 전자는 이 구절이 의미가 불분명한 본문을 해석하는 원리를, 후자는 예언을 해석할 수 없는 개인 독자의 한계를 말한다고 본다. *ιδία*가 독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점에서, 가톨릭계의 해석은 『개역개정』의 해석과 비슷하다.

형용사 *ἰδιος*는 첫째로 “자신에게 속하는(*pertaining to one's self*)”, “자기의(*one's own*)”를 의미하고,¹⁹⁾ 둘째로 (고전 그리스어에서 *δημόσιος*[공공의], *κοινός*[공통의]의 반대로서) “사적인(*private*)”을 의미한다.²⁰⁾

이 설명에 따르면, 일부 우리말 성경처럼 이 단어를 반드시 “제멋대로”, “마음대로”, “임의로” 등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20하반절은 공적인 해석에 반대되는 사적인 해석을 의미한다. 앞서 소개한 대로, 『개역개정』의 번역 “사사로이”는 “공적(公的)이지 않고 개인적인 성질이 있게”를 의미한다.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종종 *one's own*(사람 자신의)으로 번역되는데, KJV는 “*private*”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20하반절이 예언의 사적 해석을 금지한다고 번역하면, 그 함축적 의미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성경의 예언도 사람 자신의 해석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번역하면,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성경을 해석할 어떤 개인의 자유도 배제하며, 고위성직자들의 선언에 맡겨져야 함을 암시할 수도 있다.²¹⁾ 이는 앞서 소개한 가톨릭계의 해석을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개인은 교회가 전해주는 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가톨릭의 해석을 거부하면서 『개역개정』의 번역을 지지하는 이는 20하반절을 달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칼뱅(J. Calvin)에 따르면, 베드로는 사적인(*private*) 해석에 관해 말할 때, 개인을 가리키지도 않고,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는다.²²⁾ 베드로가 의미하는 바는 개인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이다.²³⁾ 여기에서 “사적인”이라는 단어는 신적 계시와 대조된다.²⁴⁾

*ἰδία ἐπίλυσις*를 “개인의 사적인 해석(*one's own private interpretation*)”으로 설명한 BDAG에 따르면, 이것은 저자 자신이 의도한 의미와 대조되거나, 공인되거나(*authorized*) 유능한 다른 사람의 해석과 대조된다.²⁵⁾ 여기에

19) J. H. Thayer,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296.

20) *Ibid.*, 297.

21) N. Hillyer, *1 & 2 Peter, Jude*,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Serie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1), 40.

22) J. Calvin, *Commentaries*, J. Haroutunian and L. P. Smith, trans., ed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Ichthus E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58), 88.

23) *Ibid.*

24) *Ibid.*

서도 “개인”이 아니라, “그른” 해석에 방점이 찍힌다. *ιδίαις ἐπιλύσεως*가 임의로 하는 해석을 의미한다고 번역한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 20하반절이 경계하는 것은 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멋대로 하는 해석이므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이 자신의 해석자라는 칼뱅의 주장은²⁵⁾ 옳지만, 20하반절에서 “사적인”이라는 단어가 개인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 해석은 그리스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부합하기 힘들다. 베드로후서 1:20을 제외하면, 베드로후서에 *ἴδιος*는 여섯 번 나오는데(1:3; 2:16, 22; 3:3, 16, 17), 여섯 번 모두 “자기(자신)의”를 의미한다. 저자가 베드로후서 1:20에서만 *ἴδιος*를 “제멋대로의” 혹은 “그른”의 의미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작다. 이러한 의미는 *ἴδιος*의 명시적 의미(denotation)보다는 함축적 의미(connotation)에 가깝다.

한마디로, 『개역개정』 번역의 약점은 베드로가 예언의 사적 해석을 금지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고, 다른 우리말 성경의 약점은 *ιδίαις*를 다소 자유롭게 번역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장대로 *ιδίαις*가 예언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면, 이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이 해석은 낯설지 모르지만, 이상한 해석은 아니다. 우선 *ἴδιος*가 예언자를 가리킨 선례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보کم은 예언의 인간 기원을 부인하는 일련의 헬레니즘 유대교 및 초기 기독교 진술에서 *ἴδιος*가 사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²⁷⁾ 지중해 세계에서 예언자들은 흔히 자기에게 온 예언을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20하반절은 성경에 수록된 예언들이 예언자들의 해석 과정의 결과라는 것을 부인한다.²⁸⁾

또한 20하반절을 구약성경과 연관하여 읽으려는 시도는 타당하다. 구약성경은 거짓 예언자들을 비난하는데, 그들의 선포는 자기 생각에서 나와서 그들은 자기 마음의 망상으로 말하고(렘 14:14), 그들은 여호와의 입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경험하였으며(렘 23:16), 따라서 그들은 자기 영을 따르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예언자들이다(겔 13:3).²⁹⁾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런 비난이 성경의 참 예언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³⁰⁾ 사도들이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았듯이(1:16), 구약성경의

25) BDAG, 467.

26) J. Calvin, *Commentaries*, 88.

27) R. J. Bauckham, *Jude, 2 Peter*, 229-230.

28) L. R. Donelson, *I & II Peter and Jude: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0), 234.

29) R. Harvey and P. H. Towner, *2 Peter & Jude*, The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Ser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9), 71.

예언자들은 자기의 상상으로 말하거나 쓰지 않았다.³¹⁾

5. 20절과 21절의 관계

ἰδίᾳς가 예언자를 가리킨다고 번역한 NET에 따르면, 20절과 21절을 연결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해석은 예언자들이 자신의 예언을 지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20절).³²⁾ 왜냐하면 예언하겠다는 충동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21절).³³⁾ 반면에 옛 개신교계의 해석과 가톨릭계의 해석은 20절과 21절의 관계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다.³⁴⁾

그러나 이 비판은 단지 부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21절의 γάρ는 다른 해석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예언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아 말한 것이라는 21절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믿음의 유비 원리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기록한 예언인 이상, 성경 전체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므로, 성경의 확실한 본문이 덜 확실한 본문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절은 개인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교회의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고전 2:10) 성령의 조명을 받는 개인 독자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얼마든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문제는 개인과 교회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이다.

같은 이유에서, 『개역개정』의 번역 역시 이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20절이 개인적인 해석을 의미한다고 번역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해석은 21절의 γάρ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말한(21절) 예언을 단지 개인이라는 이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20절) 볼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개인 독자로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나?

반면에 21절은 20절이 제멋대로 하는 해석을 금지한다고 보는 일부 성경

30) Ibid.

31) Ibid.

32) NET 각주.

33) NET 각주.

34) NET 각주.

번역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개인이 임의로 하는 해석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한 예언을 결코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번역은 ἰδιως의 사전적 의미와 다소 다른 약점을 지닌다.

6. ἐπιλύσεως의 의미

명사 ἐπίλυσις는 신약성경에서 베드로후서 1:20에만 나오는 단어(hapax legomenon)이다. “풀기(loosening, unloosing)를 의미하는 ἐπίλυσις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의미할 수 있다.³⁵⁾ 그러나 ἐπίλυσις가 성경 밖 그리스어에서 해석을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리키는 경우가 없음에 주목한 NET에서는 이 단어를 예언자 자신의 “상상(imagination)”으로 번역하였다.³⁶⁾ 그렇지만 베드로후서 1:20이 바로 ἐπίλυσις가 성경에 대한 해석을 가리키는 유일한 예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ἐπίλυσις가 “풀기”나 “펼침”을 의미하고, 게다가 성경 밖에서 종종 해석을 의미한다면,³⁷⁾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 1:20에서 해석을 의미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ἐπίλυσις의 동사형인 ἐπιλύω는 마가복음 4:34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ἐπιλύω는 “해석하다” 혹은 “설명하다”를 의미한다. 예수는 비유가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해석해(설명해) 주셨다(ἐπέλυεν, 막 4:34).³⁸⁾ 앞서 소개한 우리말과 영어 성경 대부분은 명사 ἐπίλυσις를 “해석” 혹은 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번역하였다. ἰδίως를 어떻게 해석하든, ἐπιλύσεως는 모종의 “해석”을 가리킴이 거의 확실하다.

evpi,lusewj가 “해석”을 의미하고, 본 논문의 주장대로 ivdi,aj가 “예언자 자신”을 가리킨다면, 베드로후서 1:20은 자신의 꿈이나 환상(vision)에 대한 예언자의 해석이나 설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³⁹⁾ NIV의 번역대로 상황이나 일들(things)에 대한 예언자 자신의 해석을 의미할 수도 있다. 반면에 CSB 같은 성경에서는 단지 예언자 자신의 해석이라고 번역할 뿐, 무엇에 대한

35) J. H. Thayer,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240.

36) 이 단어의 기본 개념은 펼침(unfolding)인데, 이것은 설명 혹은 창조를 나타낼 수 있다 (NET 각주).

37) 스타사고라스(Stasagoras)는 예언자가 징조(omen)를 비호의적으로 해석하자 다음과 같이 불평한다. σὺ σεαυτῆ ἐπέλυσας τὸ σημεῖον(당신은 그 징조에 당신 자신의 해석을 내놓았다). BDAG, 375.

38) 『개역개정』에서는 ἐπέλυεν을 “해석하시더라”로, 『새번역』에서는 “설명해 주셨다”로 번역하였다.

39) NET 각주.

예언자의 해석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그리스어 원문이 해석의 목적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목적어가 NIV의 번역대로 상황이나 일들일 수도 있지만, NET의 제안대로 예언자의 꿈이나 환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목적어를 추측하여 번역에 넣을 필요는 없다.

7. 20하반절과 21상반절의 유사성

20하반절과 21상반절의 구문과 의미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은 20절의 번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하반절과 21상반절의 의미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20하반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자신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pāsa* *propheteia* *graphēs* *idiai* *epilūseōs* *ou* *ginetai*)

21상반절: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생긴 적이 없다

(*ou* [*gār*] *thelēmati* *anthrōpou* *hēnēchthē* *propheteia* *potē*)

본 연구의 번역대로라면, 20하반절은 예언이 예언자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음을 말한다. 21상반절은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생긴(*hēnēchthē*) 적이 없음을 말한다. 이처럼 20하반절과 21상반절 모두 예언의 출처가 사람, 즉 예언자의 사사로운 해석이나 사람, 즉 예언자의 뜻이 아님을 밝힌다. 그다음에 21하반절은 예언이 성령에 이끌린(*pherōmeinoi*)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한다.

20절과 21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gār*가 21절에 쓰인 점을 제외하고 두 절의 문장 성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주어: *pāsa* *propheteia* *graphēs* // *propheteia*

동사: *ginetai* // *hēnēchthē*

불변화사: *ou* // *ou*

명사구: *idiai* *epilūseōs* // *thelēmati* *anthrōpou*

우선 두 절 모두 불변화사 *ou* // *ou*를 사용한다. 물론 몇 가지 사소한 차이점이 있다. 20절의 주어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지만, 21절의 주어는 단순히 “예언”이다. 그러나 21절의 “예언”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성경의 모든 예언”을 받는 이상, 사실상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더구나 21상반절에는 불

변화사 ποτέ(이전에, 일찍이)가 사용된다. 이 불변화사로 인하여 21상반절은 일찍이 있었던 모든 예언에 관하여 말하게 되므로, 21상반절의 주어인 “예언”의 실질적 의미는 20하반절의 주어인 “성경의 모든 예언”이 된다.

동사 γίνεται와 ἠνέχθη의 차이점 역시 미미하다. 21절에 사용된 분사 φερόμενοι와 직설법 동사 ἠνέχθη 모두 φέρω(나르다) 동사의 변화형이다. 따라서 φερόμενοι를 “이끌린”으로 번역한 것처럼, ἠνέχθη는 “이끌렸다”로 번역할 수 있다.⁴⁰⁾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이끌리지 않았다는 말은 예언이 사람의 뜻에서 나오지 않았음을,⁴¹⁾ 혹은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생겨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⁴²⁾ 그렇다면 두 구절 모두 예언이 생겨나지 않는 출처를 말한다는 점에서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

두 동사의 시제 차이는 다소 의미심장할 수 있다. 20하반절의 γίνεται는 현재 시제이고, 21상반절의 ἠνέχθη는 부정과거(aorist) 시제이다. 21상반절에서는 과거에 생기지 않은 예언을 말하기 위하여 부정과거 동사 ἠνέχθη를 사용하였다. 21하반절은 또한 과거에 생긴 예언을 말하기 위하여 부정 과거 동사 ἐλάλησαν([사람들이] 말하였다)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γίνεται의 현재 시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20하반절은 과거의 예언이 아니라, 과거의 예언을 읽는 현재 행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역개정』의 번역이 암시하듯이, ἰδίας ἐπιλύσεως는 예언자의 해석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을 가리키게 된다.

그러나 γίνεται의 현재 시제는 20하반절을 현재 독자의 해석에 대한 진술로 해석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γίνεται 동사의 현재 시제를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망라하는 격언적 현재(gnomic present)로 읽어도 문맥이 매끄럽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20하반절은 예언의 출처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고, 21절은 이미 기록된 예언의 출처에 대한 진술에 해당한다.

물론 저자가 γίνεται 대신에 부정 과거 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격언적 현재 시제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접속사 ὅτι가 이끄는 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자기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는 γινώσκοντες의 목적절에 해당한다. 저자는 독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πρώτον) 알아야 할 사실을 말하면서, 특정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 예언의 일반적 특성을 강조

40) 21절에 두 번 사용된 동사 φέρω는 약간의 의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언어유희(word play)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언어유희를 살려 이 구절을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예언은 사람의 뜻에 이끌린(이끌려 나온) 적이 없고,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 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41)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새번역』).

42) “사람의 뜻에 따라 예언이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새한글』); “No prophecy was ever produced by the will of man” (ESV); “No prophecy was ever made by an act of human will” (NAS).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21절에서는 예언자들이 과거라는 특정한 시기에 말한 예언으로 범위를 좁힌다. 따라서 γίνεται를 과거 시제로 번역한 NIV와 NLT의 번역은 아쉬움을 남긴다. 앞서 소개한 EASY는 γίνεται를 과거 시제로 번역하고, 다시 현재 시제로 번역함으로써, 이 현재 동사의 격언적 성격을 잘 살렸다.

끝으로 명사구 *ιδίας ἐπιλύσεως*와 *θελήματι ἀνθρώπου*의 의미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주장대로 전자가 예언자 자신의 해석을 의미한다면, 두 명사구 모두 예언자가 예언의 출처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초점은 약간 다르다. 두 구절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생각을 가리키지만, 20하반절은 예언이 예언자의 해석에 기인하지 않음을, 21상반절은 예언이 예언자의 뜻에 기인하지 않음을 말한다. 둘 다 예언자가 예언의 출처가 될 수 없음을 말하지만, 전자는 예언자의 사사로움에, 후자는 예언자의 인간적 한계에 방점을 찍는 듯하다. “사람의 뜻”의 의미는 같은 구절에 암시되어 있다. 사람의 뜻에 이끌린 예언은 성령에 이끌리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받지도 않은 말이다.

요약하면, 20하반절과 21상반절은 몇 가지 표현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의미심장한 의미론적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단지 γίνεται와 ἠέχθη의 시제 차이를 이용하여, 예언의 일반적 특성에 이어 과거 예언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한 ἐπίλυσις와 θέλημα의 의미 차이를 이용하여, 예언자의 해석에서 예언자의 뜻으로 초점을 옮길 뿐이다. 이러한 변주는 결국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께 받아 말한 참 예언의 출처를 밝히는 절정(21하반절)으로 향한다.

8. βεβαιότερον의 의미

19절에 나오는 βεβαιότερον(더 확실한)은 20절의 번역과 관련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19절과 20절을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형용사 βέβαιος는 “확실한(sure)”, “신뢰할 수 있는(trusty)” 등을 의미한다.⁴³⁾ 놀랍게도 저자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16-18절에서 이야기한 후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19절에서 선언한다.

『개역개정』의 번역에 따르면, 저자는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바로 20절에서 예언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

43) J. H. Thayer,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99.

라고 경고한 셈이다. 이 해석은 불가능하지 않다. 둘 다 예언을 대하는 독자의 바른 자세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권면은 예언이 잘못 해석될 여지를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하다.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말하자마자 예언의 해석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순서는 다소 어색하다. 먼저 예언의 해석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나서 확실하게 해석된 예언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τόν νοῦν을 생략한 채 여격과 함께 사용되는 προσέχω(19절)는 “...에(게) 마음을 기울이다(turn the mind to)”를 의미한다.⁴⁴⁾ 본 논문의 주장대로 20-21절이 예언의 신적 출처와 권위를 말한다고 보면, 이 두 구절은 19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근거가 된다. 성경의 예언은 예언자의 해석이나 예언자의 뜻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더 확실하고, 따라서 마음껏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9. 수미상관 혹은 크레센도⁴⁵⁾

저자는 16절에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름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위엄을 목격한 자가 됨으로써, 그의 능력과 강림하심(παρουσία)을 독자들에게 알게 하였다고 말한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결코 예언자 자신의 상상으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NET의 번역을 따르면, 베드로후서 1: 20-21은 16절과 수미상관(首尾相關, inclusio)을 이룬다.⁴⁶⁾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한 말씀 — 에 기반한다.⁴⁷⁾

16절과 20-21절이 수미상관을 이룬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16절과 20-21절은 수미상관이 아니라 크레센도(crescendo)에 가깝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관한 이야기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의 큰 위엄을 직접 보았다고 16절에서 말하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18절에서 말한다. 저자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17절에서 소개한다. 19

44) Ibid., 546.

45) 이탈리아어 크레센도(crescendo)는 “점점 세게” 혹은 “점점 크게”를 의미하는 음악 용어이다.

46) NET 각주.

47) NET 각주.

절을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저자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선언한다. 즉, 20-21절에서 언급할 예언은 방금 언급한 변화산의 목격담 — 그 기억이 확실하더라도 — 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장을 따르면, 성경의 예언이 변화산의 목격담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언자 자신의 해석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이고(20절),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생겼기 때문이다(21절).

다시 말해, 16-18절은 저자 개인의 해석(20절)이 아니라 저자의 목격담이므로 확실하다. 그렇지만 저자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변화산 사건의 역사적 진실성을 확신함에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예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저자가 목격한 변화산 사건의 역사성을 약화하지 않고, 성경 예언의 권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변화산 사건의 역사성과 진실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에, 또한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후서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서(마 17장, 막 9장, 눅 9장)에 기록되어 있기에, βεβαιότερον(더 확실한)을 축자적으로 번역하기를 꺼릴 수도 있다. 어찌면 이 때문에, 일부 성경에서는 βεβαιότερον을 “완전히 신뢰할 만한”으로 다소 자유롭게 번역하기도 하였다.⁴⁸⁾

신약성서에서 최상급은 비교급보다 훨씬 덜 사용되고 최상급은 대체로 비교급으로 대체된다.⁴⁹⁾ 비교급의 형용사를 절대최상급(elative)으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⁵⁰⁾ 그러나 비교급 형용사는 신약성서에 모두 317회 나오는데, 절대최상급 용법은 일곱(어찌면 여덟) 번에 불과하다(눅 11:53[어찌면]; 행 13:31; 17:22; 21:10; 24:17; 25:14; 27:20; 고후 8:17).⁵¹⁾ 신약성서에서 절대최상급 기능의 약 72%에는 최상급 형태가 사용되고, 비교급 형태는 단지 28%만 사용된다.⁵²⁾

비록 저자의 체험이 기록된 예언만큼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본문의 초점이 전자에서 후자로 옮겨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저자가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성경 예언의 확실성이다.

48) 예를 들면, “We also have the prophetic message as something completely reliable” (NIV). “Moreover, we possess the prophetic word as an altogether reliable thing” (NET).

49) J. W. Wenham, *The Elements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132.

50) 비교급 형용사는 때때로 절대최상급 의미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면, ὁ ἰσχυρότερος ἀνὴρ는 “그 더 강한 남자”보다는 “그 매우 강한 남자”를 의미할 수 있다. D. B. Wallace, *The Basics of New Testament Syntax: An Intermediate Greek Grammar*, 133.

51) T. B. Williams, “Confirming Scripture through Eyewitness Testimony (2 Peter 1.19a): Resolving a Crux Interpretu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3:4 (2021), 609.

52) Ibid.

10. 베드로후서 1:16-18과 1:19-21의 관계

본 연구의 주장을 따르면, 베드로후서 1:16-18과 1:19-21은 각각 하나의 의미 단위를 형성하여 비교선상에 놓이게 된다. 재림의 확실성은 변화산 사건뿐만 아니라(16-18절), 예언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19-21절). 16-18절은 저자가 써 나가는 목격담의 확실성을, 19-21절은 이미 기록된 예언의 확실성을 말한다. 후자의 확실성은 전자를 능가할 수 있다.

반면에 『개역개정』— 그리고 20절을 예언의 권위에 대한 진술로 보지 않는 다른 번역—에 따르면, 19-21절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기 힘들다. 왜냐하면 19절은 예언 자체에 대해 말하고, 20절은 예언의 해석에 대해 말하고, 21절은 다시 예언 자체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절과 21절의 초점은 각각 예언의 확실성과 예언의 신적 권위에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20절의 초점은 예언을 해석할 권위가 없는 독자에게 있다.

물론 16-18절과 19-21절이 각각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하반절은 사람들이 구약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리킨다고— 그 결과 이 구절이 종종 정통에서 벗어난 성경 읽기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고—해서, 이 구절이 앞뒤 구절들에서 분리되고 갑작스럽고 불필요한 주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⁵³⁾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장대로 19-21절이 한결같이 예언의 권위에 대해 말한다고 보면, 글의 흐름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저자의 논지가 조금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11. 베드로후서 1:19-21과 2:1-3의 관계

베드로후서 1:20이 예언의 해석이 아니라 예언의 출처에 관해 말한다는 본 논문의 주장은 1:19-21과 2:1-3을 대조함으로써 더 설득력을 얻는다. 앞서 살펴본 대로 1:19-21은 한편으로는 1:16-18과 비교되고, 한편으로는 2:1-3과 대조된다. 2:1은 거짓 선생들의 출현을 경고하는데, 2:3에 따르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 하나는 말을 지어낸다는 것이다.⁵⁴⁾ 3절의 πλαστός는 πλάσσω(형성하다, 만들다)에서 유래한 형용사로서, 문자적으로 “만들어진

53) L. R. Donelson, *I & II Peter and Jude: A Commentary*, 234.

54)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개역개정』 뱀후 2:1, 3).

(formed)” 혹은 “만들 수 있는(formable)”을 의미한다.⁵⁵⁾ 따라서 『새번역』의 “그럴듯한”보다는 『개역개정』의 “지어낸”이나 『새한글』의 “꾸며낸”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다. 따라서 이것은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릇된 해석보다는 그들이 지어내는 거짓말 즉 그릇된 예언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여기에 사용된 *πλαστός*는 1:16의 *σοφίζω*를 떠올리게 한다. 예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σεσοφισμένοις*) 신화도(1:16), 거짓 선생들이 꾸며낸 말도(2:3) 아니다.

이처럼 예언의 출처에 관해 말하는 1:19-21은 거짓말의 출처에 관해 말하는 2:1-3과 대조를 이룬다. 전자는 참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이다. 성령에게 이끌려 나온 참 예언과 탐심에서 나온 거짓말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

이처럼 1:20의 앞뒤 인접 문맥에 예언의 해석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 구절을 예언의 해석에 대한 진술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1:19-21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앞으로는 1:16-18과 비교되고, 뒤로는 2:1-3과 대조되도록 1:20을 번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해석이다.

12.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어 연구와 인접 문맥 분석을 근거로, 베드로후서 1:20하반의 우리말 번역을 대체할 새 번역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ιδίαις*가 예언을 해석하는 개인이 아니라, 예언자 자신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γίνομαι*의 기본 의미인 “생기다”를 살려, 20절을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예언자 자신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첫째로 개인이 해석할 수 없는 예언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침묵하며, 둘째로 20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21절의 *γάρ*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님을 보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20하반절과 21상반절의 의미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부각하였다. 20하반절은 예언이 예언자의 해석으로부터 생기지 않음을 말하고, 21상반절은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생긴 적이 없음을 말한다. 두 구절 모두 사람이 예언의 출처가 아님을 말한다. 이 사실은 20하반절의 『개

55) H. Braun, “*πλαστός*”, G. Friedric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VI.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68), 262.

역개정』번역을 재고하게 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번역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해석을 낳는다. 첫째로, 16절과 20-21절은 수미상관보다는 크레센도(crescendo)를 형성한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언자 자신의 해석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에(20절), 그리고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생겼기 때문에(21절), 예언의 말씀은 확실한 변화산 목격담(16-18절)보다 더 확실하다(19절).

둘째로, 1:19-21은 하나의 의미 단위로서 앞으로는 1:16-18과 비교되고, 뒤로는 2:1-3과 대조된다. 저자의 목격담이 확실함을 말하는 16-18절은, 기록된 예언이 더 확실함을 말하는 19-21절과 비교된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예언에 관해 말하는 1:19-21은, 거짓 선생들에게서 나오는 지어낸 말에 대해 말하는 2:1-3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본 연구자는 베드로후서 1:20하반의 『개역개정』번역을 대체할 새 번역을 제안하였다. 이 구절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하면(풀면) 안 된다는 의미로 번역하기보다는,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예언자 자신의 해석(풀이)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다. 무엇보다도 『개역개정』의 번역이 개인의 성경 해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후서 1:20하반의 번역과 다른 번역이 있음을 적어도 각주 설명을 통해 성경 독자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주제어>(Keywords)

베드로후서 1:20, 성경의 예언, 자기의, 단어 연구, 인접 문맥.

2 Peter 1:20, prophecy of Scripture, one's own, word study, immediate context.

(투고 일자: 2025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5년 8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10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ㅂ~ㅇ』,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Bauckham, R. J., *Jude, 2 Peter*, Word Biblical Commentary 50, Waco: Word Books, 1983.
- Calvin, J., *Commentaries*, J. Haroutunian and L. P. Smith, trans., ed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Ichthus Edi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1958.
- Danker, F. W., et al.,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BDAG),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Donelson, L. R., *1 & II Peter and Jude: A Commentary*, The New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10.
- Elwell, W. A.,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1.
- Friedrich, G.,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VI,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68.
- Harvey, R. and Towner, P. H., *2 Peter & Jude*, The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Ser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9.
- Hillyer, N., *1 & 2 Peter, Jude*,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Serie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1.
- Thayer, J. H., *Thayer'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Peabody: Hendrickson, 1996.
- Wallace, D. B., *The Basics of New Testament Syntax: An Intermediate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2000.
- Wenham, J. W., *The Elements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Williams, T. B., “Confirming Scripture through Eyewitness Testimony (2 Peter 1.19a): Resolving a Crux Interpretu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3:4 (2021), 605-624.

<Abstract>

A New Korean Translation of 2 Peter 1:20

Chul Heum Ha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English translations usually translate 2 Peter 1:20b (πάσα προφητεία γραφῆς ἰδίας ἐπιλύσεως οὐ γίνεται) either “no prophecy of Scripture comes from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CSB), or “no prophecy of scripture is a matter of one’s own interpretation” (RSV). Significantly different, verse 20b is translated into Korean in two somewhat similar ways. It is taken to mean either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is to be interpreted arbitrarily (NT) or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is to be interpreted privately (e.g., NKRV).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translation of 2 Peter 1:20b by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though grammatically possible, be revised in such a way as to indicate that it means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comes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This reading is supported by an in-depth study of such important words as ἴδιος, γίνομαι, and βέβαιος in addition to a close reading of the immediate context. Among other thing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ἰδίας of 2 Peter 1:20b refers to the interpreter himself rather than the individual reader of any prophecy of Scripture.

This study also draws attention to the significant similarity between verse 20b thus read and verse 21a, which both indicate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comes from individual prophets. Then, verse 20 semantically matches not only verse 19, which speaks of the absolute certainty of prophecy, but also verse 21, which speaks of the divine source of prophecy. Verses 19-21, as a semantically coherent unit, foreground the authoritativeness of prophecy. As a corollary, these verses are nicely compared with verses 16-18, which refer to the certainty of the author’s experience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Verses 16-21 form a *crescendo* (v. 19) in the sense that the more certainty of the prophetic word (vv. 20-21) outweighs, at least taken at face value, the certainty of the author’s eyewitness account (v. 16). Biblical prophecy is more certain than any human experience (v. 19), because no prophecy of Scripture comes from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v. 20), on the one hand, and prophecy never came by the

human will but from God (v. 21), on the other hand. As well, verses 19-21 are sharply contrasted with 2 Peter 2:1-3, which condemn the fabricated words by false teachers. All things considered, the suggested translation of 2 Peter 1:20b, “no prophecy of Scripture comes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